

중서(中西)교류사 탐구의 성과와 연행록 연구의 접점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cloudway@aks.ac.kr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조류는 동아시아의 전통 질서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었거니와, 임진왜란은 이를 극명하게 표출한 분기령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 질서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의 청나라가 성립되었다. 명말에서 청초 시기에 중국에는 서구의 신문명이 활발하게 유입되었고, 그 선구에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서양 전교사들이 있었다. 조선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구세력과 직접적으로 조우하지 못했으며, 주로 연행 갔던 사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학(西學)을 수용할 수 있었다. 연행사들은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전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학과 접촉했거니와, 그 주된 창구는 북경의 천주당(天主堂)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학 수용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행록에 보이는 북경 천주당 관련 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경에는 천주당이 네 곳 있었으며, 이곳은 서구의 전교사가 상주하면서 근대적 과학 문명 및 종교를 전파하는 진원지였다. 북경의 천주당은 18세기에 조선의 사신들이 으레 들르는 관광 명소의 하나가 되었으니,

홍대용(洪大容)은 천주당의 유래와 조선의 사신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이마두(利瑪竇)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사람과의 통교(通交)가 시작되었다. [...] 성 안에 사당(四堂: 동당·서당·남당·북당)을 지어 그들을 살게 하고 천상대(天象臺)라 불렀다. 이 때문에 서양의 학문이 성하기 시작하여 천문(天文)을 말하는 이는 모두 그들의 기술을 조술하게 되었다. [...] 강희(康熙, 1662-1722) 연간 이후로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에 가서 더러 그들이 있는 집에 가서 관람하기를 청하면, 서양 사람들은 매우 기꺼이 맞아들이어 그 집 안에 설치된 특이하게 그린 신상(神像) 및 기이한 기구들을 보여주고, 또 서양에서 생산된 진기한 물품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선물도 탐낼 뿐더러, 그 이상한 구경을 좋아하여 해마다 찾아가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고 있었다.¹⁾

위 인용문은 명나라 만력 연간(1573-1619)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양의 문명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천주당이 네 곳 건립되어 그 진원지가 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마테오 리치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해서 광둥 중부 조경(肇慶) 및 소주(韶州)에 머물다가 1601년에 이르러서야 북경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래 서학은 만력제를 비롯해 명나라 조정의 중신들 또한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청나라가 들어선 뒤로도 이어졌던 것이다. 홍대용의 언급을 통해 강희 연간 이후 우리나라 사신 또한 천주당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그곳에 있는 서양화 및 각종 기물들을 관람하고, 서양 전교사들 또한 사신 일행을 환대하였던 정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경의 천주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서학 접촉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행록 중 이와 관련된 기록을 추출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전하는 17세기 이후의 연행록은 대략 300종 가까이 되는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중 천주당 관련 기사가 보이는 것은 33종에 달한다.²⁾ 조선후기의 서학 수용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 1) 『담헌연기(湛軒燕記)』 「유포문답(劉鮑問答)」. 번역은 『국역 담헌서』의 것을 참조하여 다듬은 것임.
- 2) 필자는 17세기 이후의 연행록에서 천주당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하는 자료집을 구상하고, 대략 초역을 마친 상태에 있다. 현재까지 천주당 관련 기사가 수록된 연행록으로 확인된 것은 총 33종으로 조영복(趙榮福)의 『연행일기(燕行日記)』(1719), 이이명

연행록 외에 개인 문집을 비롯해 여러 기록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양의 각종 문물을 직접 접하고 그곳의 서양 전교사들과 필담을 나누며 대화한 연행록의 기록은 가장 우선적인 자료로 무엇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연행록에 보이는 천주당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북경 천주당의 상황과 그곳에 거주하며 우리 사신을 만났던 전교사들의 행적(특히 중국 내에서의 활동)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경의 천주당을 방문한 조선 사신은 처음 접하는 천주당의 모습과 그곳에 있는 서양의 각종 의기 등을 보고 서양 전교사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게 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천주당에 있는 중국인 조수를 통한 한문 필담의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는데, 그 필담 내용 또한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교사들의 북경에서의 활동 상황 및 이들이 처한 형편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양 전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와 관련된 이들의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는지도 궁금한 점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 두 가지를 접하고 이러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책은 중서교류사(中西交流史)와

(李頤命)의 『소재집(疎齋集)』(1720),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庵燕記)』(1720), 이건명(李建命)의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1721), 강호부(姜浩溥)의 『상봉록(桑蓬錄)』(1727), 김순협(金舜協)의 『오우당연행록(五友堂燕行錄)』(1729), 조상경(趙尙綱)의 『연사록(燕槎錄)』(1731), 이의현(李宜顯)의 『임자연행잡지(壬子燕行雜識)』(1720), 한덕후(韓德厚)의 『연행일록(燕行日錄)』(1732), 남태제(南泰齊)의 『초자록(椒蔗錄)』(1752), 저자 미상의 『연행일록(燕行日錄)』(1755), 정광충(鄭光忠)의 『연행일록(燕行日錄)』(1756), 이상봉(李商鳳)의 『북원록(北轅錄)』(1760), 홍대용(洪大容)의 『담헌연기』(1765), 엄숙(嚴燾)의 『연행록(燕行錄)』(1773), 이압(李押)의 『연행기사(燕行記事)』(1777), 이덕무(李德懋)의 『입연기(入燕記)』(1778),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1780), 이노춘(李魯春)의 『북연기행』(1783), 강세황(姜世晃)의 『표암연경편(豹菴燕京編)』(1784), 조환(趙煥)의 『연행일록(燕行日錄)』(1787), 서호수(徐浩修)의 『열하기유(熱河紀遊)』(1790), 백경현(白景炫)의 『연행록(燕行錄)』(1790), 김정중(金正中)의 『연행록(燕行錄)』(1791), 저자 미상의 『연행록(燕行錄)』(1794), 서유문(徐有聞)의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1799), 이해응(李海應)의 『계산기정(蘊山紀程)』(1804), 저자 미상의 『부연일기(赴燕日記)』(1828), 한필교(韓弼敎)의 『수사록(隨槎錄)』(1831),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輦直指)』(1832), 김직연(金直淵)의 『연사일록(燕槎日錄)』(1858), 유후조(柳厚祚)의 『연행일기(燕行日記)』(1866)이다. 이 중에 이이명의 『소재집(疎齋集)』의 기록은 연행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천주당의 전교사에게 보낸 편지글을 문집에 수록한 것이며, 19세기의 연행록 중 일부는 북경의 천주당이 아니라 러시아 공관에서 접한 천주교 및 서학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북경 천주당을 직접 방문하고 그 소감을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연행을 통한 서학 접촉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에 포함시켰다.

관련한 역작으로 조선시대의 서학 수용사를 살피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근대 개항 이전까지 서학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우리들로서는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 양상을 면밀히 고찰함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이 책들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 특히 연행록의 서학 접촉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에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中國天主教史人物傳 上·中·下』

方豪 지음, 北京: 中華書局, 1988, 전권 1,036쪽

방대한 사료와 치밀한 고증으로 복원한 중국천주교사 저자 방호(方豪, 1910~1980)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서양의 교류사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데, 이는 천주교 신부이면서 라틴어에 해박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 출신인 그는 1922년 항주의 천주교 수도원에 입학해서 라틴어를 학습하고, 영파(寧波)의 성 바울(保羅) 신학원을 수료하고 1935년 신부가 되었다. 자연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그는 절강대학(浙江大學)과 복단대학(復旦大學)의 교수를 지내다가, 1949년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대학(臺灣大學) 교수를 역임하였다. 청사편찬위원회(淸史編纂委員會) 위원을 역임했으며, 1974년 대만중앙연구원 원사(院士)로 선임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중서교통사(中西交通史)』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원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서양의 교류사를 풍부한 자료와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고찰한 명저로 알려져 있다. 총 4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마지막 편이 곧 ‘명청지제중서문화교류사(明清之際中西文化交流史)’인데, 천문학, 의학, 지리학, 음악, 미술, 건축 등 제 분야별로 나누어 중국과 서구의 교류사를 탐구하였다. 『중국천주교사인물전』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이 『중서교통사』에 수록된 당대 및 원대의 경교(景敎)와 명청시대의 천주교 전도사를 근간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편찬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본래 홍콩(香港)의 공교진리학회(公

教眞理學會)에서 간행한 공교보(公教報, 주간)에 1962년부터 1973년까지 10여 년간 연재한 글을 대중광계출판사(臺中光啓出版社)에서 출간한 것이다. 상중 2책은 1970년 9월에 출판되고, 하책은 1973년 12월에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1988년 중화서국에서 영인 출간한 것이다.

방호 이전에 중국에서 활동한 전도사들에 대해 정리한 책으로는 피스테(費賴之, Aloysius Pfister: 1833-1891)의 『在華耶蘇會士列傳及書目(*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ésuites de l'ancienne de Chine*)』이 가장 저명하다 할 것이다. 피스테 신부는 상해의 서가회(徐家匯)에 있는 장서루(藏書樓)에서 오랜 기간 동안 책임을 맡아보면서 중국 천주교사를 연구할 수 있었다. 서가회는 예수회에 입교하고 마테오 리치에게 서양 과학기술을 전수받아 서학 수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광계(徐光啓, 1562-1633)가 농장을 경영하며 농업 기술을 실험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그의 후손들이 모여 살면서 서가회란 지명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수입하는 창구 구실을 하던 곳이었다. 1847년 지어진 서가회의 장서루는 2층 건물로 2층에는 각종 서양서, 1층에는 한적이 각기 수만 권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피스테 신부는 이 장서들을 활용하여 총 481인의 전교사에 대해 저술할 수 있었는데, 방호 역시 이 책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다.

방호의 저서에는 상책에 79인, 중책에 72인, 하책에 154인으로 총 305인에 대한 전기가 실려 있다. 상책에는 당원(唐元)대 경교의 인물 15인과 함께 예수회 창립 멤버의 하나인 사비에르(方濟各沙勿略, Francesco Xavier: 1506-1552)를 필두로 명나라에 초기 전교에 관여했던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중책에는 명말 청초에 활동했던 전교사 및 중국인 신부 및 신자가 실려 있고, 하책에는 19세기 이후 전교사의 도움 아래 서구 신학원에 유학해 신부가 되었던 이들의 행적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방호 저서의 수록 인물 수는 피스테 신부의 저작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천주교사의 사적인 전개과정에 유의하면서 각종 사료를 인용하여 그 내적 맥락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학을 수용하는 데 기여했던 중국인 신부 및 신자의 상당수를 밝혀내고 있는데, 이는 피스테 신부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특징적인 서술 방식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천주교사 중 주요한 인물을 추려내어 각 사람마다

한 편의 작은 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서술의 중심을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날줄로 삼고 역사 사실을 씨줄로 삼아 역사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사람은 역사로 보완되도록(以人爲經 以史事爲緯 史以人顯 人以史傳) 힘썼다고 하였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동서양의 방대한 문헌을 섭렵해서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인물을 복원시키고 있다는 점인데, 저자가 의도한 ‘사람을 역사로 보완한다’는 서술 방식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자신은 역사를 중시했기에 서명을 ‘중국천주교사인물전(中國天主教史人物傳)’이라 했다고 하면서, 중국 천주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비중이 있는 인물은 천주교 정통에 속하지 않더라도 서술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당원(唐元) 시대의 경교(景教)는 당시 서방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었지만 전해오는 그에 관한 한문 문헌 중에는 우리들의 교의(教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원 간 경교의 인물로 15인을 상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중서문화 교류의 연원을 살피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된다. 아울러 고비앙(郭弼恩, Charles Le Gobien: 1653-1708)과 뒤알드(杜赫德, 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평생 중국 땅을 밟지 않은 예수회 선교사들인데 이들 또한 서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해외의 예수회 전교사들이 본국에 보내오는 서신들을 모은 정기간행물 『교훈적이고 신기한 서신들(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의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있던 인물들이다. 중국 전교사들의 편지는 뒤알드에 의해 1725년 파리에서 출판되었으며, 이 책의 간행은 서구 학술계, 정치계 및 종교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서구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또한 역사를 중심에 놓고 서술하였기에 포괄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저술 의도에 따라 이 책은 동서양의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의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중국 천주교사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전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 또한 세심하게 살펴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는바, 이 또한 이 책이 지닌 미덕의 하나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중국인 신자 이용시(李應試)란 인물에 대한 기술(상책, 156-161쪽)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마테오 리치의 제자로 세계지도 제작에 깊이 관여했으며

임진왜란에도 참여했기에 조선과도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조선에 최초로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전래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만력 계묘년(1603) 내가 부제학으로 있을 때에 북경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 이광정(李光庭)과 권희(權愾)가 6폭으로 된 구라과국의 여지도 하나를 본관에 보내왔으니, 대개 북경에서 얻은 것이다. 그 지도를 보니 매우 정교한데 서역이 특히 상세하고 중국 지방 및 우리나라의 팔도와 일본의 60주(州)에 이르기까지 지리의 원근과 대소가 빠짐없이 자세하였다. [...] 내가 살펴보니 그 나라 사람 이마두와 이응성(李應誠)이란 자가 또한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를 지니고 있는데, 왕기(王沂)의 『삼재도회(三才圖會)』 등의 책에서 그 설을 채용한 것이 많았다.³⁾

위 인용문은 1602년에 마테오 리치와 이지조(李之藻, ?-1631)가 함께 만들어 목판으로 찍어 펴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바로 그 이듬해 연행 갔던 사신에 의해 곧바로 수입된 사실을 증언하는 유명한 기사이다. 방호는 위 기록에서 “按其國人利瑪竇·李應誠者, 亦俱有山海輿地全圖”란 기록을 인용하며, 일본인 학자 나카야마 히사쓰키(中山久次郎)가 저술한 『이마두전(利瑪竇傳)』에서 이 기록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응성(李應誠)이란 인물은 이응시(李應試)의 오기임을 중국인 학자 홍외런(洪煨蓮) 선생이 고증을 통해 밝힌 것을 소개하고, 이는 이마두의 저술 『基督教遠被中國記』에서 1602년(만력 30) 8월 6일 세례를 하고 바울(保祿, Paul)이란 세례명을 준 Li Insci란 인물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명사(明史)』의 <이여송전(李如松傳)>과 <조선전(朝鮮傳)>의 기록을 보면 이응시는 이여송의 참모로 임진왜란에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측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⁴⁾

3) 『芝峯類說』 卷2, 諸國部. “萬曆癸卯, 余忝副提學時, 赴京回還使臣李光庭·權愾, 以歐羅巴國輿地圖一件六幅送于本館, 蓋得於京師者也. 見其圖甚精巧, 於西域特詳, 以至中國地方暨我東八道·日本六十州, 地理遠近大小, 纖悉無遺. [...] 按其國人利瑪竇·李應誠者, 亦俱有山海輿地全圖, 王沂「三才圖會」等書, 頗採用其說.”

4) 『해동역사(海東歷史)』에는 이응시가 이여송의 참모로 여러 계책을 건의한 기록이 몇 군데 보이니, 일례를 들어보면 권65에 “이여송이 개성에 오래도록 주둔해 있었는데, 압록강과의 거리가 1,000리였으며, 군사들은 피로하고 군량은 다 떨어졌다. 이에 참군(參軍) 이응시(李應試)와 모의하여 다시 심유경을 파견해 책봉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

이용시는 1603년 <곤여만국전도>를 개정한 <양의현람도>의 판각을 주도하였고 이마두와 함께 나란히 발문을 지었는데, 이 지도는 바로 이듬해 북경에 사행 갔던 황윤중(黃允中)에 의해 조선에 전해졌다. 방호는 1936년 10월 일본인 학자 आयु자와 신타로(鮎澤信太郎)가 『역사교육(歴史教育)』 11권 7기에 발표한 <양의현람도>와 관련된 논문을 보았는데, 아마도 1603년 이후 오래지 않아 조선에서 연행 온 사신 편에 조선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आयु자와 신타로가 소개한 지도는 조선인 황병인(黃炳仁) 군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근래에 전란이 많았던 한국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걱정까지 덧붙이고 있다.⁵⁾

이상 이용시의 서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방호가 전기를 작성함에 있어 중국의 서학 수용사 및 천주교 전래사에서 해당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인물의 역사적 의의를 중심에 놓고 서술하고 있기에, 이 책에서는 경우에 따라 비슷한 행적의 인물을 함께 기술하기도 하였다. 강희제 때 이루어진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작성에 참여한 선교사들을 묶어서 소개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중책, 298-306쪽).

저자는 명청 대 중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 과학 방면에 있어 선교사들의 집단 작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명말에 이루어진 『송정역서(崇禎曆書)』의

는데, 일이 성사되려고 하다가 어그러지고 말았다. [...] 심유경이 재차 일본에 사신으로 갈 적에 참관 이용시가 몰래 이여송에게 고하기를, ‘풍중영을 별도로 가등청정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서로 싸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는데, 이여송이 이 계책을 쓰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 5)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가 조선에 미친 영향」에서 최선웅 씨는 황병인이 소장하고 있던 지도가 일인 학자의 손에 의해 소개된 연유와 한국전쟁 당시 지도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 본관을 둔 평해 황씨 종가에서 300여 년간 비장돼오던 이 지도를 황씨 집안의 종손인 황병인(黃炳仁)이 밝혀냈는데,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그는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던 중 평소 궁금하게 여기던 물건을 열어보니 ‘兩儀玄覽圖(양의현람도)’라는 표제가 붙은 세계지도였다고 한다. 이 지도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까지 들고 간 그는 스승이자 동서문화교류사 연구의 권위자인 이시다 미키노스케(石田幹之助) 교수에게 고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교수는 고지도 연구가인 आयु자와 신타로(鮎澤信太郎)를 소개했고, 1936년 आयु자와가 이 지도를 소개하는 글을 학계에 발표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광복 직후 <양의현람도>는 황병인의 호의로 김양선 목사가 운영하는 기독교박물관에 소장하게 됐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김 목사는 이 지도를 박물관 뜰에 파묻고 피란길에 올랐다. 3개월 뒤 서울이 수복돼 돌아와 보니 박물관 소장품은 대부분 소실되어 없어졌으나 땅속에 묻어뒀던 양의현람도만은 온전했다고 한다.”(《가톨릭신문》, 2011년 4월 17일자).

편찬과 청초에 중국 전역의 실측에 기반한 <황여전람도>의 작성을 들고 있다. <황여전람도>의 작성은 1689년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획정한 네르친스크(尼布楚)조약을 교섭할 때 참여한 페레이라(徐日昇, Thomas Pereira: 1645-1708)⁶⁾와 제르비용(張誠, Joannes Franciscus Gerbillon: 1645-1708) 두 전교사가 휴대한 지도를 보고 강희제가 지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중국 전도의 작성은 1708년부터 1718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지도 작성에 참여한 선교사는 총 10인이다. 1708년 레지스(雷孝思, J. B. Régis: 1663-1738), 부베(白晉, Joachium Bouvet: 1656-1730), 자르투(杜德美, Petrus Jartoux: 1668-1720) 3인은 강희제의 명을 받들고 만리장성의 위치와 부근 하도(河道)를 측회(測繪)하였는데 강희제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듬해에는 프리델리(費隱, Ehrenbert Xavier Fridell: 1673-1743)도 참가해서 만리장성 너머 만주 서부지역과 봉천(奉天)과 조선 북부 지역, 도문강(圖們江)과 압록강 일대에 이르는 북위 40도에서 45도에 이르는 지역을 측회하였다. 중국 전역을 실제로 측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도를 작성하는 이 작업은 1718년까지 10여 년간 서양 전교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완성된 지도에는 만주, 조선, 서장(西藏)을 비롯해 중국 전역의 총도(總圖)가 포함되었는데, 조선 지도는 조선에서 입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황여전람도>의 작성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점은 1709년 조선 북부지역의 측회를 통해 서양 전교사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조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때의 백두산 부근 측회 작업은 이후 조선과의 영토 경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18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의 계기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방호의 『중국천주교인물전』의 체재와 기술 내용의 일단을 간략히 소개해보았거니와, 이 책에는 동서양의 허다한 사료들이 제시되어 있어 이 분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아쉬운 것은 저자가 자신이 인용한 자료의 서지 사항을 마지막 책을 간행할

6) 방호는 서양 전교사의 중국식 이름을 표기하고, 원명은 국적이 다양하기에 괄호 안에 라틴어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음으로 표기하고, 중국식 이름과 원명을 방호의 표기에 의거해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이에 일부 선교사의 원명은 3장에서 소개하는 것과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때 말미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출간이 임박하면서 교정에 쫓겨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 간략히 제시하는 데 그친 점이다. 아래에 이마두의 유명한 저술 『천주실의(天主實義)』의 간행 사실을 밝힌 대목을 인용하여 문헌에 대한 저자의 치밀한 고증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칠까 한다.

일명 『天學實義』로 만력 23년(1595) 南昌에서 초간된 이후 29년(1601)과 32년(1604) 북경에서 두 차례 중간되고, 33년 혹은 34년(1605년 혹은 1606년) 杭州에서 중간되었다. 승정 2년(1629) 李之藻가 편집한 『天學初函』에 수록되었으며, 이 책은 3년(1630) 및 그 이후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청조 및 民國 이후로는 北平의 北堂 및 上海의 土山灣 등지의 중간본이 있으며 이루 통계 낼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604년 일본어로 번역되어 澳門(Macao)에서 세 차례 간행된 바 있고, 1630년 交趾에서도 중간되었으며, 그 후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Jacques 신부가 절록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한 바 있는데, 이는 *Lettres édifiantes*에 수록되었으니 1818년 판 14책에 보인다(상권, 78쪽).

『耶蘇會士中國書簡集 1~6』

杜赫德 撰, 鄭德弟·呂一民·沈堅·朱靜·耿昇 譯, 鄭州: 大象出版社, 2005, 전권 1,954쪽

18세기 중국 예수회 전교사의 서간 152편의 원역 이 책은 뒤알드(杜赫德, 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가 편찬한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des Missions étrangères*를 중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뒤알드는 고비양(郭弼恩, Charles Le Gobien: 1653-1708)과 함께 해외의 예수회 전교사들이 본국에 보내오는 서신들을 모은 정기간행물 『교훈적이고 신기한 서신들(*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의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던 인물이다. 정덕제(鄭德弟)의 서문에 의하면 이들 편지는 1702년에서 1708년 사이에 고비양에 의해 8권까지 출간된 바 있으며, 1709년부터 1743년에 이르는 기간에 뒤알드의 주관하에 9권에서 26권이 출간되었다고 한다. 그 후 1749년에서 1776년 사이에 27권에서 34권이 나오으로써 전체가 출간되었다.

이후에 여러 차례 개편본이 있었으며, 여러 개편본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은 1819년 프랑스 리옹(里昂, Lyon)에서 출간된 14권 본이라

고 한다. 이 중 9권에서 14권에는 중국에 있는 전교사들로부터 온 서한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번역한 것이다. 개편본의 원 제목은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des Missions étrangères mémoires de la chine>이니, 우리말로는 ‘중국의 전교사들이 보내온 교훈적이고 신기한 서신들’ 정도가 될 듯하다. 이 책에서는 <야소회사중국서관집(耶蘇會士中國書簡集)>이란 간명한 제목으로 펴냈다. 원서의 권수에 맞추어 총 152통의 편지를 6권에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역서에는 원서의 면수를 표시해 원서와 대조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역서는 2권을 1책씩 묶어 총 6권 3책으로 발간하였다.

역자 후기에 따르면 1995년 항주대학(杭州大學)에서 열린 ‘중법관계사 연구 국제학술도론회(中法關係史研究國際學術討論會)’에 참가한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역서의 간행이 시급함에 공감하면서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8년에 걸쳐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울러 지금부터 이삼백 년 전에 씌어진 글이라 현행의 프랑스어 체계와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수 있었으며, 수십 인의 예수회 선교사의 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천문지리, 역사고사, 철학종교, 의학과 과학 기술, 민풍과 민속, 물산 공예, 각종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 것이 번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이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고유 명사는 오역을 피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뒤알데의 저술은 프랑스어판과 영어판이 있어 그 의의가 일찍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 중국어 번역본을 통해 국내의 고전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하겠다.

이 책은 첫머리에 예수회의 동방 전교 역사와 프랑스 신부들이 포르투갈에 대항해서 북경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당(北堂)을 건립하게 된 경위, 원서의 출간 경위 등을 설명한 정덕제의 서문을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상책 1권, 1-18쪽). 이 중 중국과 서구 문화의 교류사 속에서 예수회가 차지하는 위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회는 종교개혁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수도사회로 로마 교황청의 친위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천주교는 서구에서 적지 않은 기반을 상실했고, 로마 교황청은 동방 선교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하여 전교사를 적극 파견하게 된다. 예수회 전교사는 전반적

으로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있으며, 현지의 습속에 적응하여 전교하는 전략을 택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 서구 문화 교류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다. 이마두는 서구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 중국 사대부 지식인을 흡인하였다. 그 본의는 당연히 전교를 위한 것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서학을 중국에 소개한 것이다. 그는 또한 사서를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중국학을 서방에 전파하였다. 예수회 전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서구 과학 지식을 번역하고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 천학(天學)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1644년에서 1775년, 북경의 예수회가 해체되기까지 청나라 조정에서 천문 역산을 담당하는 흠천감(欽天監) 감정(監正)은 대부분 예수회 수도사가 담당하였다. 전후로 이 직위를 담당한 예수회 선교사는 8인에 이르렀고, 그중 프랑스 선교사 대진현(戴進賢, Ignatius Kögler: 1680-1746)은 30년간 이 자리에 있었다. 예수회 전교사는 중국 역사를 연구하고, 중국 지도를 작성했으며, 중국 외교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중국 사회에 침투한 정도 및 중국을 이해하는 수준이 중국에 왕래한 어떤 외국인보다도 비할 수 없었던바, 당시의 우수한 중국통(中國通)이라 불릴 만하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해 정덕제는 18세기의 중국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1700년 6월 10일부터 1781년 11월 17일까지 씌어진 예수회 전교사의 서한을 번역한 이 책이 18세기의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하겠는데, 당시 서구 문명과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우리의 입장에서도 서학의 수용 양상과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경에 파견되었던 많은 연행사들이 천주당을 방문한 기록 및 예수회 전교사들과 나눈 필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 이들 예수회 전교사의 서한 중에서 조선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 18세기의 연행록 중에 보이는 연관된 기록을 같이 언급함으로써 그 일단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안다(安多) 신부는 우리들에게 북경 사람들이 고려 왕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길, 이 왕국의 수도는 조선(朝鮮)으로 칭해지며, 탈탄(驍鞑)과 고려를 경계 지르며 흐르는 압록강의 거리는 110법리(法里)이다. 이 강의 지류는 요동성의 성도(省都)인 심양(沈陽)에까지 곧장 이어지며 그 거리는 60법리이다. 심양으로부터 산해관(山海關)—이는 요동에서 중국으로 진입하는 곳이다—입구까지의 거리는 80법리이다. 산해관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67법리이다. 고려 왕국의 북방은 북위 44도까지 이어진다. 그 인구는 매우 많으며, 8개 성(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곳 사람들은 진실되고 용감하다. 이 나라의 동서 간의 거리는 140법리이며, 중국 황제의 분명한 윤허가 있지 않으면 고려인은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⁸⁾

1703년 2월 15일 폰타네(洪若翰, Jean de Fontaney: 1643-1710) 신부가 절강성 경내에 있던 주산(舟山)이란 곳에서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폰타네 신부는 강희제의 학질을 고쳐준 일로 유명하며, 그 공로로 받은 서안문(西安門) 밖의 부지에 1703년 12월 프랑스 전교사들의 본부인 북당(北堂)이 건축될 수 있었다. 폰타네 신부는 중국에 오기 전 토마스(安多, Antaine Thomas: ?-1709) 신부를 파리에서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서 들은 조선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토마스는 벨기에 국적의 예수회 전교사로 1684년 중국에 들어왔다. 페르비스트(南懷仁, Ferdinand Verbiest: 1623-1688)의 후임으로 1688년부터 페레이라(徐日昇, Thomas Pereira: 1645-1708)와 함께 흠천감에 근무하면서 역법을 담당했으니⁹⁾, 이 편지가 보내진 때에는 북경에서 이미 6년가량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흠천감에 근무하면서 들은 조선에 대한 전언을 기술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국에서 조선까지의 거리와 조선의 지리 및 조선인의 성품 등을 적고 있다. 그렇지만 왕국의 수도가 조선이라는 언급에서 그 정보가 매우 부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연행록에서는 예수회 전교사들이 조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720년에 연행한 이기지(李器之)의 『일암연기(一庵燕記)』에 그 기록이 많이 보인다.

7) 예전에 프랑스에서 쓰던 길이 단위로 1法리는 4km이다.

8) 상책 1권 「23 耶蘇會傳教士洪若翰神父致拉雪茲神父的信」, 270쪽.

9) 방호, 『중국천주교사인물전』 상책, 257쪽.

그(費隱)가 다시 묻기를, “귀국에서는 도읍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어떤 곳을 거쳐서 여기에 오셨는지 노정(路程)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내가 답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읍을 한양에 세웠는데 이곳은 나라 안의 한복판입니다. 왕경(王京)으로부터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를 거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고, 책문(柵門)으로 들어와 북경까지 왔습니다.”

[彼又問：‘貴邦建都何地，從何等地名來此，乞指明路程。’答：‘我國建都漢陽，乃一國之中也。自王京從京畿道·黃海道·平安道，渡鴨綠江，入柵門而來。’]

-1720년 10월 3일 기사

(비은이) 또 지도를 꺼내어 우리나라로 가는 노정(路程)을 문기에 통주(通州)로부터 책문(冊門)까지의 노정을 써주자, 그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확인하였다. 그 지도는 대개 비은이 의주(義州)로 가는 목극등(穆克登)을 따라 영고담까지 갔다가 동쪽 변방으로 돌아오면서 그린 것인데, 모두 청나라 글자로 씌어져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且出地圖，問東國路程，遂書自通州至冊門之路，一一按驗。地圖蓋費隱，隨穆克登往義州，且往寧古塔歸東邊地圖，而皆書清字，不可解矣。]

- 1720년 10월 22일 기사

백진(白晉)이 “일찍이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장백산(長白山)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조선 지방을 가보고 나서, 조선에도 큰 성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성을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등주(登州)와 래주(萊州)에서 조선으로 가는 해로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었는데,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2-3천 리를 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탕상현(湯尙賢)이 정태현(鄭泰賢)에게 “우리들은 조선으로 가서 천주당을 짓고 천주의 가르침을 멀리까지 포교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으니, 대개 해로를 물은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정태현이 답하기를, “이것은 우리나라 조정에 달린 것이지 우리들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곳의 황상(皇上)께서 여러 선생이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하자, 그가 “우리들은 본래 이곳에서 관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포교하기 위해 왔기에 떠나고 머무는 것을 우리 뜻대로 합니다. 대서양·소서양·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을 가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황상 또한 우리들이 오고 가는 것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白晉言，“曾與穆克登，往見長白山，見朝鮮地方。朝鮮亦有大城云，未知見何城也。”且問，“自登萊往朝鮮，海路多少如何？”答，“不能詳知，而不過二千里。”[...] 湯尙賢，言于鄭泰賢曰，“吾們欲出往朝鮮，作天主堂，使天主之教，無遠不行，可乎？”蓋問海路，亦有意也。鄭泰賢答，“此係於我國朝廷，非我們所可遙度。但此處皇上能許諸先生出去乎？”答，“我們元不受官於此處，但爲行教以來，行止隨意，大西洋·小西洋·中國·外

國, 無處不可往. 皇上亦不照管我輩之來去矣.]

-1720년 10월 28일 기사

여기에서 이기지에게 조선의 지리를 묻고 있는 프리델리(費隱, Ehrenbert Xavier Fridelli 1673-1743), 부베, 타트르(湯尙賢, Petrus V. du Torte: 1669-1724) 세 신부는 모두 예수회 소속으로 강희제의 명에 따라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의 작성에 참여한 이들이다. 목극등(穆克登)을 따라 영고탑까지 갔다 왔다는 프리델리나 목극등과 함께 장백산을 가본 적이 있다는 부베의 말은 모두 이때의 경험을 말한 것으로, 이들은 1709년 만주 및 조선 북부 지역을 실측하면서 조선 국경 부근까지 답사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조선은 실측의 경험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었을 법하거나, 타트르 신부는 조선에 천주당을 짓고 천주교를 포교하려는 속내를 대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진솔하게 의중을 드러낸 데에는 아마도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던 이기지의 태도에서 오는 신뢰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⁰⁾

다음으로는 <황여전람도>의 작성을 위해 만주 북부지역을 답사하다 인삼을 발견하고 이를 서구 세계에 알리고 있는 서한을 보기로 하겠다.

저희는 중국 황제의 명을 받아 탈탄의 지도를 측량하여 그리면서 인삼 같은 유명한 식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삼을 중국에서는 이처럼 중요시하는데, 유럽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1709년 7월 말, 저희는 고려에서 불과 4법리(法里) 떨어진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Calca-tatze라고 불리는 탈탄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인근의 산에서 네 줄기의 온전한 인삼을 캐서 바구니에 넣어 가져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손 가는 대로 한 줄기를 골라 가져왔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한 원래 크기에 맞게 인삼의 모양을 그려서 신부님께 보내드리고, 또 편지 말미에 그 그림에 대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 나무 말뚝으로 만든 울타리 하나가 인삼 산지와 우리가 옛 지도상에서 요동이라 부른 성을 완전히 분리시켜놓았습니다. 울타리는 이 하나의 성을 봉쇄하였으며 울타리 근처에는 또 끊임없이 경비대를 두어서 순찰하며 중국인들이 본래 있던 성을 떠나서 인삼을 캐내는 것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10) 이기지의 『일암연기』에는 북경 천주당에 관한 내용이 현전하는 연행록 중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서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는 북경의 네 천주당 중 당시에 있던 세 곳의 천주당, 곧 남당·동당·북당—西堂은 1723년에 건립된 다—을 모두 방문하여 그곳의 전교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대해서는 신익철, 「이기지의 『일암연기』와 서학 접촉 양상」, 『동방한문학』 29집(동방한문학회, 2005) 참조.

다. 경비가 이처럼 삼엄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갈망이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황무하고 인적이 없는 땅에 몰래 들어가게끔 하여서 때로 (몰래 들어가는 사람이) 많게는 2,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¹¹⁾

이 서한은 자르투 신부가 1711년 4월 12일 북경에서 보낸 것이다. 그가 만주 북부지역을 실측하던 1709년 당시에서 3년 가까이 지나 썩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편지 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조선에서 16km밖에 안 떨어진 곳까지 답사했다는 것과 인삼 산지와 요동의 성을 분리시킨 나무 울타리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자르투 신부가 16km 떨어졌다고 말한 조선의 국경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무 울타리로 분리했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책문(柵門)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압록강에서 책문까지 110리에 이르는 지역이 조선과 청의 봉금(封禁) 지역이라는 사실과 “울타리는 이 하나의 성을 봉쇄하였는데 울타리 근처에는 또 끊임없이 경비대를 두어서 순찰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 성은 책문을 관할하는 봉황성(鳳凰城)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이 보면 책문을 넘어 조선지역으로 넘어와 불법으로 인삼을 채취하는 청국인이 당시 2, 3천 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는 생략했지만 자르투 신부는 실제 인삼을 복용하고 그 놀라운 효능과 그 생김새 및 채취 방법, 약효와 복용 방법 등을 편지에서 상세히 전한다. 자르투 신부의 이 편지는 인삼에 대해 서구 세계에 최초로 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로부터 10년도 안 지나 인삼은 서구인이 중국에서 구매하는 주요 물품이 되었다. 서양 상선이 와서 어떤 물건들을 매매하느냐는 이기지의 질문에 프리텔리 신부는 서양 상선이 인삼·백사(白絲)·금단(錦段)·차엽(茶葉) 등의 물품을 구입해 간다고 하여¹²⁾, 비단과 차보다 인삼을 먼저 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한지의 우수성과 그 용도에 대해 설명한 서간을 보도록 하겠다.

나는 결코 고려인이 언제부터 그들의 제지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정확히 알지

11) 상책 2권 「33 耶穌會傳教士杜德美神父致印度和中國傳教區總巡閱使的信」, 50-52쪽.

12) 『일암연기』 1720년 10월 3일; “問, ‘買賣何物?’ 答, ‘但載西洋銀子而來, 買人參·白絲·錦段·茶葉等物而去.’”

못합니다. 아마도 중국의 종이 발명이 매우 빨리 그들에게 전래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만 그들이 제조한 종이는 훨씬 질기며 보존 시간이 매우 오래갑니다. 고려 종이는 순전히 면화를 사용해 제조하기에 비단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사람들은 중국 붓을 사용해 그 위에 글씨를 씁니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펜(硯)을 가지고 글씨를 쓴다면 필시 그 표면에 명반수(明礬水)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가 아마도 흐릿해 모호하게 보일 겁니다.

고려인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종이를 대청황제의 조공으로 바치며, 그들은 매년 황궁에서 사용하는 어지(御紙)를 공급합니다. 고려인은 동시에 이러한 종이를 대량으로 지니고 와서 중국인에게 팝니다. 중국인은 결코 글씨를 쓰기 위해 고려 종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은 창호를 바르는 데 쓰는데, 고려 종이 중국인 자신의 종이에 비해 비바람을 막는 데 보다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은 이 종위 위에 기름을 발라 봉지로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이는 의복을 재봉하는 데 사용되는데, 종이를 손에 쥐고서 힘을 가해 비벼서 매우 얇은 비단처럼 변화시킨 후에 이것을 면화를 대신해 의복 안에 넣기도 합니다. 이는 심지어 면화보다 더 낫기도 합니다. [...] 공물로 바쳐지는 이러한 종이는 중국의 최상급 종이에 비해 모두 매우 견고하여 찢기가 매우 어렵습니다.¹³⁾

파레닌(巴多明, Dominique Parrenin: 1665-1741) 신부가 1730년 8월 11일 북경에서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조선 종이의 우수성은 진작부터 중국에서 널리 인정받았으며, 사행단이 한지와 청심환을 가장 많이 휴대하고 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한지를 대량으로 가지고 가서 중국인에게 판다는 사실과 중국에서의 한지 쓰임새가 파레닌 신부의 눈에는 흥미롭게 보였던 것 같다. 창호지로 쓴다는 것은 쉽게 수공이 가지만 기름 바른 한지를 꼬아서 방한용으로 솜 대신에 의복에 넣는다는 것은 18세기 중국 생활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서양 선교사들에 예물로 한지를 주는 것은 연행록에 많이 보인다. 1720년 이이명(李爾命, 1658-1722)은 수아레즈(蘇霖, Joseph Suarez: 1656-1736) 신부에게 자명종과 천리경, 해시계(日晷)를 받은 보답으로 백면지(白綿紙) 10묶음, 대모(玳瑁)와 은장도(銀粧刀) 2자루, 청서피(靑黍皮) 10장, 왜능화(倭菱花) 1축(軸), 마장니(馬障泥) 2부(部), 붓 10자루, 떡 10개, 청심원(淸心元) 10알, 크고 작은 갑초(匣草) 25갑을 주고 있으며¹⁴⁾, 홍대용은 일관 이덕성(李德星)과 함께 천주당을 방문하면서 장지(壯

13) 중책 4권, 「74 巴多明神父致法國科學院院長德·梅朗(de Marian)先生的信」, 51쪽.

14) 『일암연기』 1720년 10월 26일. “大人使乾糧辦出各物, 送蘇霖. 白綿紙十束·玳瑁·銀粧

紙)와 화전지, 부채를 예물로 지니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⁵⁾

이상에서 18세기에 중국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낸 서신 중 조선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몇 대목을 소개하고, 연행록의 관련 기록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예수회 신부들의 서신 속에는 이 외에도 천주당의 건립 과정 및 구조와 그곳에서의 생활 모습, 흠천감에서 근무하거나 황제의 명에 의해 화역(畫役)에 종사하는 생활 등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북경의 천주당을 찾은 조선의 연행사들이 궁금하게 여기며 질문하고 있는 것들로 향후 연행록에 기술된 서화 접촉 양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刀二柄·靑黍皮十丈·倭菱花一軸·馬障泥二部·筆十柄·墨十笏·清心元十九·大小匣草二十五匣，爲報自鳴鐘·千里鏡·日晷之贈也。”

15) 『을병연행록』 1965년 1월 19일 기사.